

T. S. 엘리엇과 성경시학⁹⁶⁾

김경철 (고신대)

성경시학이란 독자가 일반적인 시의 원리를 이용하여 성경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Alter ix). 성경 시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요세푸스나 제롬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지만 학문적 연구의 효시는 쿠겔(Kugel)에 의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영문학사에서 시인 개인의 작품을 성경시학이라고 명명하여 연구한 것은 두 편으로서, 그중 시대적으로 앞선 것은 초서(Chaucer)의 것이고 바로 이어 1년 뒤에 출판된 것이 스펜서(Spencer)의 성경시학이다. 베서만(Besserman)은 초서가 성경을 혁신적인 문학적 관점에서 사용한 것을 강조하면서(3) 초서의 성경사용을 중세 문화의 맥락 안에서 검토하되, 성경적 의미가 충만한 초서의 시를 다룸으로써 그때까지 간과되어 온 성경시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초서가 일반 문학을 위해 놀랍도록 다양하게 성경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베서만에 따르면 초서의 성경시학은 초서의 시 안에서 성경의 특별한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xi).

이와 다소 유사하지만 초서보다는 현대 문학사조에 한 걸음 더 부응되게 스펜서를 연구한 캐스키(Kaske)는 성경시학을 성경에 독특하게 사용되는 수사법이거나 성경이 특정 주제를 다루는 흔한 표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신성을 묘사하는 ‘부정적 시학’이나 또는 율법에 대한 역설 등이 포함된다. 아퀴나스(Aquinas) 역시 하나님의 속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격리의 원리’(method of remotio)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따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78). 르왈스키(Lewalski)는 성경시학을 ‘신에게서부터 영감된 시’로 정의하는데 이런 의미의 성경시학을 캐스키는 스펜서의 시에 적용하고 있다(1-18).

캐스키의 중요한 기여 한 가지는 스펜서의 시가 영감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를 통하여 성경의 역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걸작 뒤에는 신적인 영감이 있었다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되듯이⁹⁷⁾ 엘리엇의 시 역

이 논문은 T. S. 엘리엇 학회에 발표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임.

97) Steiner는 자신의 저서 제목을 *Real Presence* 라고 하여 그 책에서 모든 위대한 걸작 뒤에는 신의 도움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신적 영감이란 말은 성경이 말하는 신적 영감(divinely breathed 또는 divinely inspired)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사용한 영감이란 이런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흔히 일상사에서 가볍게 사용되는 말로 의도하였다.

시 신적 감동이 있었다고 본다면 성경시학이란 용어를 20세기를 풍미한 엘리엇의 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본고는 먼저 엘리엇의 텍스트에 사용된 많은 성경적 메아리를 역설이라는 시적 장치를 통하여 검토하고 동시에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시대구분의 문제를 엘리엇이 중요시하는 전통과 역사 개념을 사용하여 천착함으로써 엘리엇의 성경시학은 역으로 성경신학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역사의 신화화’라는 모티브를 사용하여 역사가 신화화되는 네 가지 단계, 곧 역사의 실체, 거부된 역사, 해체된 역사 및 변형된 역사를 전제로 역사를 변형시킴으로써 엘리엇의 텍스트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독자들에게 ‘지금 여기’ 살아있는 유기체로 다가가도록 만들으로써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텍스트 읽기를 잘못된 것으로 결정짓게 하는 성경 고유의 읽기전략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 것이다. 결국 역사의 신화화라는 메타포는 엘리엇의 문학과 철학이 만나는 교차점이고 이 역사의 한 가운데 ‘정지점’으로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가 한때 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나타난 탈신화화 작업이 다시 제자리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⁹⁸).

I. 역사의 신화화

C. S. 루이스(Lewis)는 성경을 가리켜 “성경은 역사이자 동시에 신화”(Bible is myth that is history)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이는 엘리엇의 시를 분석할 때 매우 적절한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본고에서 다루게 될 『네 사중주』(Four Quartets)는 엘리엇의 전체 시 가운데서 특히 역사 문제가 중심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루이스가 성경을 역사이자 신화라고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는 단순한 연대기적 역사가 아니라 ‘신학화된 역사’(theological history) 내지는 역사화된 신학(historicized theology)인 것처럼(Dillard & Longman III 22), 엘리엇 역시 역사를 단순한 역사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역사 역시 구체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현상 세계에서 탈피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제시된다(Williamson 206).

엘리엇의 시를 역사와 결부지어 다루는 한편 이를 다시 신화와 관련지우는 것은 현대사회의 역사성 그 자체로는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엘리엇의 신념 때문이다. 엘리엇은 현대사회의 무질서를 담아내는 그릇을 원했는데 그것은 그가 ‘신화적 방법’(mythical method)이라고 명명한 엘리엇 나름의 독특한 시 형식이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신화란 비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리어 신화학자 말리노프스키(Malinowski)가

98) 강영안은 19세기와 20세기의 이성중심의 신학적 사색으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이 “탈신화화”되었음을 지적한다(“강교수의 철학 이야기”, 99).

말한 것처럼 단순히 ‘들려진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살았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원시적 형태에서 신화는 들려진 이야기만이 아니라 산 실체이다. 그것은 허구의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태고 적에 한번 일어난 것으로 믿어지는, 그리고 그때 이후 줄곧 세상과 인간 운명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실체이다.

Myth... in its living primitive form, is not merely a story told but a reality lived. It is not of the nature of fiction... but it is a living reality, believed to have once happened in primitive times, and continuing ever since to influence the world and human destinies(100).

즉, 신화란 그 원시적 형태에서 성격상 허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인 것이다. 시간 개념이 없던 원시인들은 진짜(true) 이야기와 가짜(false) 이야기를 구분할 때 “다루는 내용이 ... 순전히 세상의 외부적 현상만을 다루는 세속적인”(secular) 내용일 경우 그 이야기는 가짜로 간주되고, 반대로 내용이 ‘거룩할’ 경우 그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로 여겨졌다(Childs 20)⁹⁹.

엘리엇의 시를 성경적 구도를 가지고 검토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엘리엇의 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에 나오는 ‘성경적 메아리’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는 “엘리엇 시의 ... 심오한 차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Cook 1996:68). 엘리엇의 시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미적 대상물 또는 순수한 예술 작품”이어서 시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상징들은 지속적으로 자체의 초월적 아이디어 즉, 그 뒤에 은익된 시적 신앙”을 가리킨다(Oser 39).

엘리엇의 시에 대한 다양하고, 천차만별의 접근 방법이 있지만¹⁰⁰ 그의 시를 성경시학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엘리엇의 시적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고 동시에 성경신학이 성경을 정경으로 삼는 데 반하여 엘리엇은 ‘예술의 제사장’(Oser 30) 답게 문학을 정경으로 삼으면서¹⁰¹ 동시에 성경신학과는 달리 자신의 독특한 시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그것은 텍스트에 나오는 애매모호한 언어가 묘사하는 경험 또는 통찰력이 궁극적으로는 종교적인 통찰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Melaney 150). 결국 엘리엇이 텍스트의 구조로 선택한 신화는 “시가 신앙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Maxwell 165). 한 마디로 말해서 성경신학이 성경 역사를 신화화한 것이라면 엘리엇의 성경시학은 자신의 정경인 시적 텍스트를 통해 역사를 신화화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¹⁰² 이 연구를 통하여 모더니즘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

99) 구조주의학자 레비 스트라우스와 롤랑 바르트가 자신들의 신화연구에서 지침으로 삼았던 미세레(Michelet) 역시 신화를 역사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장되어 미래에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서 “역사를 중립화함으로써 결국 역사를 신화화했다”고 주장한다(Edelstein, 408).

100) 엘리엇의 시를 자아의 시학, 불확정성의 시학, 진화의 시학, 인식론의 시학, 파시즘의 시학, 등 다양한 방법의 접근법이 사용되어 왔다.

101) 루이스 역시 “Literature as Logos”라고 하여 문학의 가치를 말씀의 수준으로 높였다(51).

102) 본고에서 사용된 신화의 정의는 흔히 생각하듯이 근거 없는 태고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가 분명하면서도(historical) 역사상 단 한번 일어난, 결정적 사건으로(historic) 이 한 번의

로 탈신화화된 시적 텍스트가 다시 독자의 감수성을 통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의 신화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포개진다는 사실이다.

II. 「번트 노트」-카르페 디엠¹⁰³⁾

엘리엇은 자신의 철학시인 『네 사중주』에서 역사를 자기 나름의 철학적 사색의 도구로 삼아 역사를 정의하고 있다.

역사 없는 국민은
시간에서 구속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무시간적 순간의 한 형이기 때문이다.

... A people without history
Is not redeemed from time, for history is a pattern
Of timeless moments(LC. V. I. 233-5).

엘리엇이 여기서 특이하게 피력하는 역사론은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한 역사론이 아니다. 결국 역사란 인류의 지나온 흔적이면서 동시에 이 흔적은 자신들을 미래로 인도하는 미래지향적 특성이 있고 이리하여 역사란 구속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엘리엇이 특별히 구속이란 성경적 용어를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구속이란 자유 없는 속박의 삶을 사는 노예나 죄수를 둔 많은 자가 몸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공짜로 풀어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¹⁰⁴⁾. 이런 맥락에서 버터필드(Butterfield)가 “역사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 말은 모두 다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2-48). 이런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모든 역사란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논리가 가능해지고 역사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우선하게 된다. 엘리엇은 『네 사중주』에서 역사와 시간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역사란 궁극적으로 영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아마 모두 미래의 시간에 존재하고,

사건으로 인해 여타 모든 역사가 영향을 받는 획기적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루이스 역시 성경은 신화인 역사라고 했을 때 이 점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루이스는 신뢰받을 만한 기독교 사상가로서의 명성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103) Carpe Diem 이란 Horace가 *Ovid*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이는 대체로 포크너(Faulkner)의 작품 “Seize the Day”와 대체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Carpe Diem의 원래 의미에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있는 데 본고에서는 대체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104) 로마서 3:23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포함된다.
모든 시간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면
모든 시간은 구속할 수 없을 것이다.

Time present and time past
Are both perhaps in time future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If all time is eternally present
All time is unredeemable.

이리하여 엘리엇이 제시하는 역사는 구속의 기능을 가진 것 곧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독자는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명상으로 시작된 「번트 노트」 여행은 곧 바로 신현으로 이어지는 데, 이는 다름 아닌 메마른 콘크리트 연못이 빛의 연못으로 변형되고 결국 성경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처럼 흘러가는 구름의 그림자로 끝난다(Cook 1987:92).

『네 사중주』가 시간에 대한 사색으로 시작되는 것이 역사란 결국 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에 역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우리들에게 더 친숙한 시간에 대한 명상으로 시는 시작하고 있다. 시가 전개되면서 시작되는 시간에 대한 명상의 결론은 만일 모든 시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시간에 대한 어떤 구속도 없다는 것이다. 시의 모두에서부터 시간과 그 시간의 구속 문제가 텍스트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이어서 시는 곧장 ‘시간의 회복과 갱신’문제로 나아간다(Kramer 35-6). 여기서 크래머가 말하는 ‘시간의 회복’이나 ‘갱신’은 지금부터 본고에서 사용할 역사의 변형 내지 역사의 신화화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있을 수 있었던 일과 있는 일은
한 점을 향하여, 그 점은 항상 현존한다.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BN. I. 45-6).

변화무쌍한 시간은 항상 존재하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영원한 현재는 영원한 목적으로 대체되고 이 영원한 목적은 그 성격상 현재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데 이 사실이 이 시 『네 사중주』의 나머지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쿡의 말은 정확하다(Cook 1987: 87). 여기서 엘리엇의 시간관이나 역사개념은 목적론적(Teleological)인 의미를 함축하고 그와 함께 엘리엇의 텍스트는 성경적인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리하여 엘리엇이 제시하는 역사는 구속의 기능을 가진 것 곧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독자는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카르페 디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발자국 소리는 기억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열어 본 적이 없는 문을 향하여 사라지는 데 이 문은 최초의 세계로 이어진다.

발자국 소리는 기억 속에서 반향하여
우리가 걸지 않은 통로로 내려가
우리가 한 번도 열지 않은 문을 향하여

장미원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 따라가 볼까?
빨리, 그걸 찾아요, 찾아요, 모퉁이를 돌아서,
새가 말한다, 첫째 문을 빠져,
우리들의 최초 세계로 들어가.

Footfalls echo in the memory
Down the passage which we did not take
Towards the door we never opened
Into the rose garden.

Shall we follow?
Quick, said the bird, find them, find them,
Round the corner. Through the first gate
Into our first world(BN. I. 11-4, 20-3).

우리 인간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순진무구한 세상, 그래서 모든 예술, 기타 모든 인간의 문학 활동이 궁극적 목표로 삼는 이 낙원에 대한 묘사로 인해 독자인 우리는 들뜬 심정이 된다. 그곳을 에덴이라 불러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황금시대로 불러도 좋지만 만일 에덴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추방자인 것을 몰랐을지 모른다(Howard 30). 시의 이 부분처럼 『네 사중주』는 무수한 성경적 암시로 충만하다. 시의 모두에서부터 사복음서, 그중 특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개념인 생명, 빛, 바람, 최초세상 등이 앞 다투어 등장한다(Cook 1987:85-7).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한다.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 시는 순간 우주는 ‘무에서 창조’(creatio ex nihilo)된다¹⁰⁵. 결국 첫째 날 빛은 “이 생명 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정의한 요한의 설명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시된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주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¹⁰⁶. 따라서 우주 창조는 빛과 생명 그리고 루아흐(ruah)라고 하는 ‘바람’이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런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 갈수는 없다. 영적 순례

105) 히브리어 bara(ברא)란 masa 와는 달리 기존 재료 없이 무에서 부터 완전히 새로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

106) 과학계는 우주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학설이 얼마 전까지 통용되어 왔으나 근자에 이르러 이 이론이 수학적으로 모순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후로 더 이상 우주는 영원 전 부터 존재 했다가보다는 빅뱅이론 즉, 우주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폭발했다는 것인데 이 이론은 성경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Lee Strobel, 118-156).

의 여행을 막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 시간이 우리를 엮어매고 육체 또한 연약함에 싸여 있어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의 사슬은
변화하는 몸의 연약함으로 짜여져 있지만,
육체가 견디기 어려운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

Yet the enchainment of past and future
Woven in the weakness of the changing body
Protects mankind from heaven and damnation
Which flesh cannot endure(II. 79-82).

시간이나 육체는, 비록 연약에 매여 있기는 하나, 인생으로 하여금 육신이 견딜 수 없는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시는 현재의 목적과 계시의 처소로서 시간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육체도 정당화하고 있다(Cook 1987: 87). 항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인생 항해자란 어떤 의미에서는 출발과 도착을 사이에 둔 ‘중간’(betweenness)에 존재하는 자라 할 수 있는 데(Kramer 43-4) 이 『네 사중주』의 첫 번째 시인 「번트 노트」는 시간이 영원히 존재하여 구속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결말에 이르도록 태초 세계 아이들의 다급한 재촉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황폐한 슬픈 시간’은 앞, 뒤로 확장될 뿐이다.

나뭇잎 그늘에서 아이들의
숨은 웃음소리가 일어난다.
빨리, 자, 여기, 지금 언제나—
우습게도 쓸모없는 슬픈 시간은
앞으로 뒤로 뻗었을 뿐.

There rises the hidden laughter
Of children in the foliage Quick now, here, now, always—
Ridiculous the waste sad time
Stretching before and after(I. 171-5).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에덴에서의 순진무구했던 최초의 인류를 상기시키고 아이들의 이 웃음소리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태고적 사건이 우리가 기억해야할 본향의 목소리임을 알려준다. 이 태초의 세상은 프라이가 말한 메타 내러티브로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원형적 사건이다. 이는 창세기의 서술 형식과 다르지 않다. 세일하머(Sailhamer)는 성경에 묘사된 세계는 “실제 세계로 의도된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서사의 핵심적인 특징을 “하나의 실제 세계를 언어적 형태로 재현하는 능력”

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110-11). 이리하여 성경의 기본적인 언어 구조는 일상 생활에 일어나는 사건에 일치하도록 조정됨으로써 성경 속의 사건과 등장인물들이 마치 매일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과 똑같이 발생하도록 독자 앞에 제시하고 있다(111). 독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가 목적론적인 것이며 더 나아가 텍스트가 언어형태로 실제세계를 재현한 것이기에 독자인 우리들은 항상 카르페 디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이스트 코커」 - 거부된 역사

카르페 디엠의 원칙에 따라 매 순간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리라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순간의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영적인 의미를 상기하며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물리적, 또는 영적인 환경에 의해 쉽게 휘둘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인 역시 불혹의 나이에 들어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20년이란 그 적지 않은 세월을 회상한다.

그리하여 나는 여기 중도에 있다. 20년을 보내고서-
20년, 두 전쟁 사이의 세월을 거의 허송하고서-

So here I am, in the middle way, having had twenty years-
Twenty years largely wasted, the years of l'enter deux guerres(EC. V. 173-74).

비록 독자의 시선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돌려보지만 시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지나온 과거에 대한 원망과 삶의 회한이 알알이 배어있다. 이런 시인의 심정은 이시가 “내 종말에 내 시초가 있다”(In my end is my beginning)(V. 209)라는 말로 이 시는 막을 내리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엘리엇의 물개성시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시인의 이 고백은 시인의 고백이면서¹⁰⁷⁾ 동시에 독자들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루이스의 말처럼 시는 ‘시인의 자아를 넘어’(51-2)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현대인들의 절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신의 생애에 남겨진 상처, 실패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싶은 것이 인생인지라 이 시점에서 역사는 중단된다. 쿡이 「이스트 코커」의 역사관을 ‘거부된 역사’로 본 것은 타견이다(1994: 93). 역사와 더불어 언어의 효율성 또한 이해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거부된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을 위하여
또는 이미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방식을 위하여
말을 더 잘 써보고자 배워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107) 엘리엇의 고난의 삶에 대해서는 필자의 줄고인 「T. S. 엘리엇의 『황무지』: 부활 인식론을 넘어서」를 보라.

One has only learnt to get the better of words
For the thing one no longer has to say, or the way in which
One is no longer disposed to say it(EC. V. 176-78).

역사가 거부된 이 자리에서 인간 역사는 “나의 시작에 나의 종말이 있다”(In my beginning is my end)(I. 1)라는 단언과 “나의 종말에 나의 시초가 있다”(In my end is my beginning)(V. 209)라는 주장이 하나로 포개지면서 역사는 의미를 상실한다. 거부와 부정만이 존재하는 이 시의 철저한 자기 부인은 결국 “죽음 이전의 죽음인 영적인 죽음”(Kramer 91)에 이르게 하는 데, 이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강조한 ‘부정의 길’(via negativa)로서 이를 통해 신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역설인 자신은 죽고 그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신의 실체에 이르는 확실한 과정이라고 선언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의 선언은 거부된 역사와 죽음 안에 또 다른 죽음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거부된 역사가 있음을 암시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거부된 역사의 현장에서 자기 백성들의 철저한 거부로 십자가 위에서 거부되며,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아들의 절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외면으로 인하여 철저히 거부된다. 결국 십자가 사건은 하늘과 땅 모두로부터 거부되신 그리스도 사건이요 역사가 거부된, 총체적 거부사건이다.

남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¹⁰⁸⁾ 거부당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자신을 거부한 자들의 상처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철저한 자기 부인인 또 하나의 죽음을 상기한다.

상처 난 외과의는 메스를 들고
병든 자리를 찾는다.
그 피 듣는 두 손 밑에서 우리는
열도표의 수수께끼를 푸는
의사의 기술의 날카로운, 그러나 따뜻한 연민을 느낀다.

The wounded surgeon plies the steel
That questions the distempered part;
Beneath the bleeding hands we feel
The sharp compassion of the healer's art
Resolving the enigma of the fever chart(IV.148-50).

상처 난 외과의는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 받는 종’(suffering Servant)에 조응하고 우리는 그 외과의의 두 손 아래서 날카로운 연민을 느낀다. 여기서 시인은 그리

108) 마가복음 10:45 “인자(예수)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스도의 수난을 거부된 역사라는 포맷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성경적 역설법을 차용한다. 역사가 의미를 상실한 이 자리에 엘리엇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삽입함으로써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역설적 수사법을 다시 차용한다. 십자가상의 죽음이 신의 저주로 인한 것이라는 구약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만천하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다(109). 구약성경에 따르면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만 가해지는 형벌이기에 그리스도는 결국 죄인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이 논리는 결국 신약성경에 이르러 역설에 그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한 대리적 죽음이라는 선포가 신약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다(110)(111).

이리하여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은 우리가 마실 유일한 음료이고 피 묻은 살은 유일한 음식이 된다”(The dripping blood our only drink / The bloody flesh our only food) (IV. 168-9). 비록 상처 입은 외과의에게서 가슴에 와 닿는 연민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속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고난도 겪어야 한다. 거부된 역사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다시 거부되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건강은 병이다.
죽어 가는 간호사에 복종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간호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즉 아담의 저주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회복되자면 우리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야 한다.

Our only health is the disease.
If we obey the dying nurse
Whose constant care is not to please
But to remind of our, and Adam's curse,
And that, to be restored, our sickness must grow worse(II. 152-56).

다시 살기 위해서는 거부의 거부 곧 우리의 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야 하고 항해는 계속되어야 한다. 온갖 역경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거친 파도를 뚫고 항해는 지속되어야 한다.

깜깜한 찬 곳과 공허한 황무지를 통하여
파도 소리, 바람소리, 바다제비와 물고래의 광활한 파도를 통하여

109) 신명기 21: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110) 갈라디아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1) 성경에는 무수한 역설 내지는 반어법 그리고 역전이 등장하는 데 이런 반어법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모세 사건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인물로 선택된 자인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를 바로 왕의 공주가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갈 양육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Wilson Baroody & William F. Gentrup 132-33).

가야만 한다. 내 종말에 내 시초가 있다.

Through the dark cold and the empty desolation,
The wave cry, the wind cry, the vast waters
Of the petrel and the porpoise. In my end is my beginning(EC. V. 207-9).

「이스트 코커」 전체를 통하여 역사는 거부되고 이 거부된 세상 역사는 다시 인간의 죽음을 포함하면서 결국 최고의 죽음인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독자는 거기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시초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한다.

3. 「드라이 셀베이지즈」 — 해체된 역사

‘광활한 파도’(vast waters)를 상기시키는 「이스트 코커」의 마지막 부분이 엘리엇이 유년시절 자주 방문했던 드라이 셀베이지즈의 광대한 바다 광경으로 이어진다. 시간 속에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흐르는 ‘한 힘센 갈색 신’(a strong brown God)(I. 2)인 강은 시간과 동일시된다. 바다 역시 매사추세츠의 작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창조의 흔적들과 또 직선운동(linearity)을 거부하는 반복적 운동들로 인하여 역사를 초월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아닌 시간’(time not our time)의 이미지가 된다(Cook 1987:94). 그리하여 바다는 인간 인식 기능의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는 바다 없는 시간을 생각할 수 없고,
페품들이 흩어져 있지 않는 바다를 생각할 수 없고
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We cannot think of a time that is oceanless
Or of an ocean not littered with wastage
Or of a future that is not liable
Like the past, to have no determination(I. 68-71).

우리의 존재는 바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으나 문제는 이 바다 주변에 페품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고 이 바다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과거는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미래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과거가 부정되고 미래가 더 이상 미래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해체가 이루어지고 텍스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들을 ‘와해시키면서’(incrementing) ‘이전으로 거슬러 가는 운동’(a movement backward)을 시작하여 창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Cook 1987: 94).

밤중과 새벽 사이, 그때에 과거는 모두 거짓이 되고,
미래에는 미래가 없다. 그것은 새벽 오경 전
시간이 멈추고 시간이 끝이 없는 그때
현재 있는 그리고 태초부터 있어 온 거대한 파도는
종을

올린다.

Between midnight and dawn when the past is all deception,
The future futureless, before the morning watch
Where time stops and time is never ending;
And the ground swell, that is and was from the beginning
Clings
The bell.(I. 45-50).

과거와 미래가 해체되는 이 순간에 시간이 멈추고 시간은 영원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여기서 시는 성경의 창조기사를 명징하게 암시하면서 시간이 없던 그때, 거대한 파도는 신이 창조를 시작하시던 때에 존재하고 있었고¹¹²⁾ 그리고 그보다 먼저 영원 속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바다를 수식하는 말 ‘태초부터 있었던’(was from the beginning) 이라는 것은 텍스트 상으로는 바다를 수식하지만 의미론적으로는 결코 바다를 수식할 수 없다. 바다는 결코 창조 전부터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탁월한 언어의 대가인 엘리엇의 장기가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텍스트 상으로는 과도이지만 시인은 이 부분에서 창조 사건시에 존재하던 바다를 암시함으로써 창조 사건을 언급하고 동시에 요한복음 1: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라는 말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태초에 계셨던 그리스도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¹¹³⁾.

여기서 시는 성경의 창조기사를 분명하게 암시하면서 인간의 인식 능력 바깥에 있는 신의 창조행위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 이리하여 과거는 더 이상 재건설된 역사가 아니라 갑작스런 인식의 순간에 실제로 다가온다. 여기서 시간은 영원과 연결되어 무의미한 과거나 불확실한 미래는 배제되고 시간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제 “과거는 또 하나의 형을 가짐으로 단순한 계속이나 발전만이 아닌 것이다”(That the past has another pattern, and ceases to be a mere sequence—Or even development)(II. 85-7).

이런 깨달음의 순간에 사실 자체보다는 그 사실이 주는 의미와 중요성이 “시간에 대한 승리 곧, 상실한 시간에 대한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Cook 1987: 95)

갑작스런 광휘—

우리는 경험을 하기도 의미를 몰랐다,
의미에 접근함으로써 그 경험은
우리가 행복에 돌릴 수 있는 어떤 의미 이상의

112) 창세기 1: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의 근원인 바다를 제어하고 계시고 결국 세상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에서는 이 바다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 부각되고 있다(21:1).

113) Έν αρχή τὴν ὁ λόγος(요한1:1)로 되어있는 그리스어의 원래 의미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이다.

만 형태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the sudden illumination—
We had the experience but missed the meaning.
And approach to the meaning restores the experience
In a different form, beyond any meaning
we can assign to happiness(II. 93-6).

세상 역사에서는 불가능한, 그래서 역사의 해체가 일어나는 이곳에서 불가능한 결합 내지는 ‘역설적 결합’이 이루어진다(Oser 33). 해체가 원래 결과에서 원인으로 거슬러 가서 원인을 밝혀내는 것처럼 해체를 통해 새로운 역설적 사실이 드러난다.

오서가 말한 대로 현대문학의 최대 이슈가 ‘신학과 문학의 갈등’이라고 할 때 이 언급은 엘리엇에게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문학은 종교의 대체물이고 또한 종교는 문학의 대체물’(A Dialogue on Dramatic Poetry)이었으며 그는 문학을 객관적 상관물로 하여 그의 시에 나타나는 항해의 모티브는 결국 실재에 대한 갈망에 다름 아니다(Kimball 18). 엘리엇이 회전하는 세계의 정지점으로 제시하는 인카네이션이란 무엇보다 성경적 용어로서 요한복음 모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본문에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시간 세상에 들어오시는 본인 데 디더 여기서 앞에서 희미하게 암시되던 ‘태초부터 계셨던’은 더 이상 「드라이 쉘베이지즈」의 태고적 바다를 수식하지 않고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지적함으로써 여기서 창조와 재창조, 시간과 영원이 만나고 이로써 불가능한 결합이 이루어진다.

세상 역사에서는 불가능한 역사의 해체가 일어나는 이곳에서 반쯤 추측되고 반쯤 이해된 것은 인카네이션이다. 여기서 존재의 불가능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정복되고 조화를 이룬다.

반쯤 추측된 암시, 반쯤 이해된 선물은
성육신이다.
여기서 제 존재권의
불가능의 결합이 실현된다,
여기에서 과거와 미래는
정복되고 화합한다.

The hint half guessed, the gift half understood, is
Incarnation.
Here the impossible union
Of spheres of existence is actual,
Here the past and future
Are conquered, and reconciled(V.215-9).

이제 이런 각성의 순간을 위해 인생 항해는 계속되어야 한다. 역사가 해체된 이곳, 인카네이션으로 인해 불가능의 결합이 이루어진 지금 이곳은 불가해한 하나님에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역사의 해체 순간이기도 하다. 사실 불가해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¹¹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인간과 ‘다름의 원리’(law of remoton)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Aquinas 96). 하나님을 다름의 원리에 따라 판단할 때 인카네이션과 함께 역사의 해체를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부활사건이야말로 최고의 역설적 사건으로서 타나토스 한가운데서 결정적 에로스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림으로써 죽음은 정복되고 과거는 해체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지만 아직도 이곳에서 항해자의 항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역사의 해체를 말하는 이 곳 「드라이 셀베이지즈」에서 초차 스파노스(Spanos)는 끝까지 이 시에서 어떤 존재자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526)¹¹⁵⁾.

4. 「리를 기당」 - 변형된 역사

시인이 찾아가던 곳은 영국의 한 교회당이면서 동시에 장소가 아니고 항상 있으면서 결코 시간상 존재하지 않는 장소이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엘리엇이 『네 사중주』의 제목으로 사용한 단어는 시인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이 장소는 단순한 과거의 장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은 장소와 관련되고 이제 역사는 영적인 의미를 띄게 된다. 윌리엄슨의 말처럼 결국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거기서 탈피하게 된다(206). 다르게 말하자면, 역사가 없으면 갱신이나 변형도 없다. 결국 역사를 통하여 갱신이 이쑤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역사는 노역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다. 보라, 지금 저것들, 얼굴들, 장소들이
힘껏 그것들을 사랑하던 자아와 더불어 소멸하고,
새로운 형으로 갱신되고 변형된다.

History may be servitude,
History may be freedom. See, now they vanish,
The faces and places, with the self which, as it could, loved
them,
To become renewed, transfigured, in another pattern(LC. III. 161-65).

역사는 반드시 어떤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마련이다. 이제 시인은 파랄(Farrar)

114)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머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불가해성”(incomprehensibility)을 반드시 고려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35-39).

115) Spanos는 이 시를 “Absence of presence”의 시로 규정했다(526).

이 신앙공동체를 이끌던 과거의 예배당을 찾는다. 이곳은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이고, 기도가 있었던 이곳은 시간이 구속되어 사자의 통화는 살아있는 자의 언어를 초월하여 혀에서 불을 뿜을 것이다.

이제 역사의 변형이 일어나는 이곳은 영국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 영국이 아니며 한 번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다.

무시간의 순간과 교차하는 이곳은
영국이면서 동시에 장소가 아니고, 있는 일이 없으면서 언제나 있다.

Here, the intersection of the timeless moment
Is England and nowhere. Never and always(LG. I. 52-3).

이제 이곳에서 역사와 더불어, “이해에 이르는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거부”된다(Cook 1987: 93). 이제 사실 그 자체보다는 의미가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실을 사실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 이제 시인이 머나먼 항해를 거쳐 도달한 곳은 자신이 출발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장소가 더 이상 아니다. 실제의 세계를 찾아 언어와 싸우며 도달한 곳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크레이머(Kramer)의 말대로 시에 나타난 패턴은 “새로운면서도 항시 이전 운동의 메아리”를 지니고 있다(20).

성경의 종말 역시 태초의 세계와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새로운 세상은 최초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변형되어 하늘에서 내려온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End-Zeit)이란 태초(Ur-Zeit)에 ‘그 이상의 것’이 덧붙여져 태초의 세계가 가장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네 사중주』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유지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윌슨 나이트(Wilson Knight)는 엘리엇의 작품을 ‘죽음과 생명’이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엘리엇이 자신의 시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전통적 색깔’을 반복하고 있으며 셰익스피어나 단테처럼 ‘어두움의 비전’에서 ‘천국의 광휘로의 전진’을 제공하는 데, 이는 결국 죽음의 구약에서 출발하여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신약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한다(374).

성경의 구도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진하듯이 엘리엇의 시에는 역사의 변형이 일어난다. 이제 작열하는 불이 대기를 부순다. 불로써 불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어느 불 켜를 선택하느냐만 남았다.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작열하는
공포의 불길로 대기를 부순다.
그 불길에서 혀가 선포한다.
죄의 과오로부터의 해방을
오직 희망이나,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나는
불로써 불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이 불 켜를 택하느냐, 저 불 켜를 택하느냐에 있다.

The dove descending breaks the air
 With flame of incandescent terror
 Of which the tongues declare
 The one discharge from sin and error.
 The only hope, or else despair
 Lies in the choice of pyre or pyre—
 To be redeemed fromby fire(IV. 200-5).

런던 상공을 날며 작열하는 불길을 토해내는 적국의 비행기는 이 불길에서 구원받기 위해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는 성령의 불길과 중첩된다. 여기에서 엘리엇이 상용하는 역설이 또 다시 등장한다. 독일 폭격기가 연일 투하하는 죽음의 불길을 오순절 날 임하신 생명의 성령의 불길과 중첩시킴으로써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엘리엇의 역설적 시학은 이와 같이 죽음 한가운데서 생명을 찾아내고 있다. 쿡이 여기서 “보응의 모티브가 구속의 신학 안에서 변형”되도록 하기 위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경 이미지를 찾아낸 것은 탁견이다(91). 결국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바벨탑 사건 이후 나누어진 인간의 언어가 회복되고 새로운 변형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제 이 시의 모두에서 암시된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시간의 변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가타(Gatta)는 『네 사중주』 전체를 통괄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이미지로서 변화산 사건을 꼽으면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유한한 인간이 인카네이션을 이해하며 동시에 이곳은 객관적 교리가 개인적 영성으로 변형되는 순간이라고 지적한다(156-57).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선언하신 40일 후 변화산에서 영광중에 그리스도가 변형되신 채 임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요한계시록 20:1-6)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 위에서 시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 장소는 재림시의 시간과 장소로 변형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택하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최후 승리의 순간이요, 이 순간에 시간은 완전히 변형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극명하게 표현된다. 이 신현의 순간이 지나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은 것처럼 그들에게는 흘러가는 구름만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화염의 불길이 작열하는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느 불 켜를 택하느냐만 남아있다. 시인은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구원의 길로 오순절 성령의 불을 제시하며 독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구원과 절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이 요구하는 독자반응은 성경이 가장 강하게 요청하는 데 오이에르바흐(Auerbach)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성경의 진리 주장은 호머의 글보다 훨씬 더 절박할 뿐 아니라 거의 ‘폭군적’이어서 모든 여타 주장을 거부한다. 성경 이야기의 세계는 ‘역사적으로 참된 실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은 자신이 ‘유일한 실재 세계’라고 주장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14-15). 루터(Luther) 역시 성경에

대한 독자 반응이 바르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의 대적’(adversarius noster)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는 신의 고뇌를 고안해 낸 자는 “견딜 수 없는 화염의 사쓰를 짠 두 손 뒤에 있는 낮은 이름의 사랑”(IV. 208-10)이다. 지고의 사랑은 신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최고의 사랑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고뇌’를 당하신 것이다. 이제 이 사랑의 목소리에 이끌린 시간이 신화화되고 과거가 변형, 갱신된다. 이제 과거의 역사는 ‘지금이고 영국’으로 신화화된다(116). 그러나 이 ‘지금과 영국’은 더 이상 과거의 역사적인(historical) 시 공간이 아니라 이미 신화화된(historic) 시공간으로 변형되어 존재한다.

그래서 겨울날 오후
 외딴 예배당 안에 빛이 희미해질 때
 역사는 지금이고 영국

이 사랑과 이 부름의 목소리에 끌려

So, while the light fails
 On a winter's afternoon, in a secluded chapel
 History is now and England.

With the drawing of this Love and the voice of this Calling(V.II. 235-7).

『네 사중주』에는 두 가지 인간 조건, 즉 “삶의 유한한 한계에 대한 심각한 불만족”과 “신의 제한받지 않는 영원한 구속적 임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영혼의 집요한 갈망”이 여실히 드러난다(Kramer 14). 스트롱(Strong)이 테니스에 대해서 함 말 “가장 위대한 시는 신화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가장 위대한 시는 불가능하다. 단순한 인간 사랑만으로는 시인이자 독자 속에 가장 심오한 악기의 현을 전율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 무한자에 대한 제시가 모든 숭고함과 아름다움의 비밀”(523)이라고 한 말은 엘리엇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역사의 악몽에서 탈피하는 길을 엘리엇은 자신의 평론집 「전통과 개인의 재능」(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에서 밝힌 바 있는 데 엘리엇이 시인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한 역사의식이란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이었다(Moody, 87). 엘리엇은 자신의 평론에서 오늘의 왜곡된 인류역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변형되고 새롭게 갱신, 회복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116) 신화화란 약 각주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 시공을 초월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변형됨으로써 모든 여타 역사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정신분석학이 ‘서사적 진리’와 ‘역사적 진리’를 구분하는 것에서 그와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는 데 정신분석학의 서사적 진리는 결국에는 역사성의 가치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데 이것이 본고에서 말하는 신화와 정신분석학의 정의의 차이이다. 본고에서는 신화의 정의를 반드시 역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신의 영원은 무시간의 순간으로서 여기서는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¹¹⁷⁾. 『네 사중주』의 중요한 모티브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신화화되어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곧 영국이면서 영국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면서 다시 보면 영국인 것이다. 이제 불의 부름에 응하여 우리의 향해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시는 ‘종결의 해석학’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차원’으로 계속 나아가간다는 멜라니의 지적은 매우 합당하다(Melaney 161). 우리의 탐구의 끝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일 것이며 우리는 처음으로 그 곳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탐구를 그치지 않으리라
그러면 모든 우리의 탐구의 끝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할 것이며,
처음으로 그 장소를 알 것이다.
미지의, 기억에 남은 문을 지나면
아직 발견치 않은 미지의 땅은
바로 처음이었던 그곳.

We shall not cease from exploration
And the end of all our exploring
Will be to arrive where we started
And know the place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unknown, remembered gate
When the last of earth left to discover
Is that which was the beginning(V.239-45).

여기서 시는 종교적 영역에서 시적 비유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허쉬(Hirsch)의 말처럼 종교어는 시적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시적 언어는 종교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13). 우리의 탐구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순례의 종착지에서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기보다 이 세상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탐구의 최종 종착지는 우리가 출발했던 그곳일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그 장소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보게 되리라. ‘저 세상에 대한 깨달음’(otherworldly knowledge)이 아니라 ‘현 세상의 변형된 모습’(transfigured vision of the ordinary)을 보게 될 것이다(Gatta 154).

나가면서

엘리엇의 시를 성경시학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이 시에 담겨있는 성경적 콘텐츠와 더불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적 수사학의 한 명징한 특징인 역설이라는 형식

117) 루터(Martin Luther)가 말한 대로 영원이란 두 가지 즉, ‘timeless eternity’와 ‘endless eternity’가 있는 바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은 전자 곧, ‘timeless eternity’이다.

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초서와 스펜서가 성경시학이라는 이름으로 즐겨 다룬 내용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시대구분을 덧붙이되 이를 엘리엇이 즐겨 다루었던 역사문제와 관련지어 역사의 신화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역사의 신화화를 다루되 첫째는 카르페 디엠으로서 결국 엘리엇 텍스트에 나타난 역사란 영적인 것으로서 이는 우리가 거기서 구속되어야 하는 영적인 실재라는 것이다. 이어서 거부된 역사에서는 역사가 신화화되기 위해서 과거는 철저히 거부되어야 하듯이 여기서는 자신의 거부 곧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죽음인 그리스도의 죽음이 명징한 역설적 수사학으로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가장 역설적인 실재는 거부의 거부 사건으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절정에 이른다. 해체된 역사인 「드라이 셸베이지즈」는 역사를 해체하면서 창조의 순간과 동시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선언하는 데로 나아가 결국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을 통하여 불가능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더불어 인간 역사의 해체가 가장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그리고 이어서 공중에서 쏟아지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역사는 변형되고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시간과 영원은 만나 이곳은 영국이면서 영국이 아니고 지금이면서 더 이상 시간속의 순간이 아닌 것이다.

엘리엇은 자신의 시에서 역사를 신화화함으로써 성경을 신화화한 성경신학과는 달리 엘리엇의 성경시학은 시적 텍스트를 신화화함으로써 텍스트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리하여 독자인 우리는 살아있는 텍스트 앞에서 부단히 결단해야만 한다. 우리는 신화적 사건 앞에서 사망의 불길이나 아니면 생명의 불길이나의 중요한 선택이 우리 독자 앞에 주어져 있다. 만일 독자인 우리의 반응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성경 해석이 그러하듯이 엘리엇의 시 역시 종결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향해를 계속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 새로운 비전으로 그곳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향해의 목적지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향해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도서

- 김경철. 『T. S. 엘리엇의 『황무지』: 부활인식론을 넘어서』. 『T. S. 엘리엇 연구』 제 20권 2호 (2010): 13-32.
리 스트로벨. 『예수는 역사다』. 윤관희 옮김. 서울: 두란노, 2002.
배빙톤. 『역사관의 유형들』. 천진석, 김진영 옮김. 서울: 두란노, 1979.
Aquinas, Thomas. *On the Truth of the Catholic Faith: Summa Contra Gentiles. Book 1: God*.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55.
Auerbach, Erich.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ans.

Willard Trus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Brooker, Jewel Spears. *Mastery and Escape: T. S. Eliot and the dialectic of Modernism*.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 MCMLX

Childs, Brevard S.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Myth and Reality in the Old Testament*. Naperville, 1960.

Cook, Cornelia. "Fire and Spirit: Scripture's Shaping Presence in T. S. Eliot's Four Quartets". *Literature and The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Vol 15-1 (1987): 85-101.

_____. "The Hidden Apocalypse: T. S. Eliot's Early Work". *Literature and The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Vol. 10-1 (1996): 685-80.

Dillard, Raymond B. & Longman III, Tremper.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4.

Donald T, Williams, "Christian Poetics, Past and Present" in *The Christian Imagination*. Ryken, Leland. ed. Colorado: Waterbrook Press, 2002.

Edelstein, Dan. "Between Myth and History: Michelet, Levi-Strauss, Barthes, and the Structural Analysis of Myth." in *CLIO*. Indiana University. Vol. 32-4. 397+

Gatta, John. "Four Quartets as Capstone Text in a Literature and Mysticism Course" in *Approaches to Teaching Eliot's Poetry and Plays*. Brooker, Jewel Spears. ed.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88.

Hirsch, Edward. How to read a poem and fall in love with poetry. San Diego/New York/London: Harvest Book, 1999.

Kimball, Roger. "A Craving for reality": *T. S. Eliot today*. New Criterion. Vol. 18-2 (1999): 18-25.

Knight, Wilson. *The Christian Renaissance: With Interpretation of Dante, Shakespeare, and Goethe, and a Note on T. S. Eliot*. Toronto: Macmillan, 1933.

Kramer, Kenneth Payl. *Redeeming Time: T. S. Eliot's Four Quarters*. Chicago, new York: Cowley Publications, 2007.

Lewis, C. S. "We Demand Windows" in *The Christian Imagination*. Ryken, Leland. ed. Colorado: Waterbrook Press, 2002.

Maxwell,

Melaney, William D. "T. S. Eliot's Poetics of Self: Reopening Four Quartets". *Journal of Comparative Poetics*. 22 (2002): 148-67.

Oser, Lee. *The Return of Christian Humanism--Chesterton, Eliot, Tolkien, and the Romance of History*. Columbia and Lond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2007.

Spanos, William. "Hermeneutics and Memory: Destroying T. S. Eliot's Four Quartets." *Genre*, XI (winter 1978): 523-73.

Strong, Augustus Hopkins. *The Great Poets and Their Theology*.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7.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Biblical poetics, which deals with the abundant volumes of biblical echoes and rhetoric of paradox in T. S. Eliot's *Four Quartets*. Biblical poetics, the counterpart of Biblical theology, tries to mystify history in the poetic text, as opposed to the theologizing of Biblical history.

Time and history are of great importance in the poetry of T. S. Eliot and in the modernistic milieu, because modernism hinges, in a sense, upon the dispensation of history. Eliot, the champion of the 20th century poetry, tries to mythify the present history by means of mystical method, assuming that modern history itself does not fit for poetry. Malinowski rightly defines that myth is not of the nature of fiction, but a living truth, believed to have once happened in primitive times, and continue to influence our everyday lives.

In this paper the present writer tries to describe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history in four phases, that is, *carpe diem*, which can be roughly transliterated as "seize the day", the rejected history, deconstructed time, and finally the transformation of time.

"Burnt Norton" prefaces the problem of the redemption of history, agreeing with the biblical time concept that all history is divine history. "East Coker", as the rejected history, reveals the painful confession of the poet in terms of the death, not only of ours but also of Jesus Christ. which is the most rejected and paradoxical of deaths, because he was rejected by his people and even his Father and in turn, through this death, history is rejected. "Dry Salvages" demonstrates time by uncreating time and starting a movement backward to the time of creation. While portraying the sea, one of the motifs of "Dry Salvages", he mentions both the original sea, which "is" from the beginning and the Logos, Jesus Christ, who "was" from the beginning. The incarnation is the crux of

paradoxical events, where the impossible union is accomplished and his resurrection is the paradox of paradoxes, in which the rejected history is deconstructed, life-giving eros springing out from the abyssful thanatos.

“Little Gidding” breaks the air with flames of fire, urging us to choose between the flames of fire and of the Holy Spirit to be saved. Starting with the Pentecostal fire, time starts to be so completely transformed that here is “England and nowhere, never and always”. The event on the mountain of transformation is the most paradoxical and transformational of events, substantiating history into myth where time and eternity are met. The voyagers must not cease to go forward until we get the transfigured vision of the place from which he started.

Key Words: Biblical poetics history myth Four Quartets incarnation faith Christianity Bible paradox

문학, 문화/02/발표논문/

『레 미제라블』: 문학 작품 속의 은혜와 율법

김철수 (전주대학교)

I. 들어가는 말

허구(fiction)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이 현실보다 더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용되는 낮은 정서와 표현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상적 정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투적인 현상 속에서 깊은 정서와 높은 이상을 잘 드러내는 소설을 “좋은 소설”(김영철, 31)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은 그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그가 아직 최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속 된다”(Bakhtin, 59)고 주장하는 바흐친(Bakhtin)의 말처럼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끊임없이 연속되는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읽고 쓰는 사람들의 삶 역시 직접, 간접적으로 그 소설의 내용과 연관되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인간적인 접근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작품을 기독교라는 종교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 용이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문학작품들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대한 문학 작품이나 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는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2)는 하나님의 존재명령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해야만 할 것이다. 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입장은 “신과 인간의 화해와 대결을 철저히 의식하는 긍정과 부정의 심정이나 의식이 내부로 흐르면서 새로운 인간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황송문, 26) 방식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죄악이 판재한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삶을 유지하며 때로는 죄에 빠져 방황하면서 또 때로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인간의 성실한 모습이 예술적 감수성과 문학적 기법을 수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이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에 의해 1862년에 출판된 『레 미제라블 *Les Misérables*』이라 할 수 있다.

1789년 대혁명에서 시작하여 공화정과 나폴레옹의 즉위 그리고 1830년 7월 혁명에 이르는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레 미제라블』은 1840년에 시작되어 1862년에 브뤼셀과 파리에서 출판된 위고의 일생의 역작으로 “사실상 19세기의 신념, 특별히 역사에 대한 신념의 신념의 결정체”(Brombert 221-2)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프랑스의 정황과 대혁명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함께 위고가 살았던 시대의 삶과 역사에 긴밀히 맞물리면서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원형 이야기로서 19세기 프랑스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조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레 미제라블』의 두 중심인물인 장발장(Jean Valjean)과 자베르(Jabert) 경위의 삶의 궤적을 기독교의 두 가지 중심 주제인 ‘은혜’와 ‘율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추적하면서 그 두 개념이 인간